

## 김동수 교수의 요한이 말하는 예수 8강 영광의 죽음을 향해 전진하는 예수

### I. 들어가는 말

1.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9-10장을 “무엇이 바리새인들을 눈멀게 했는가?”라는 주제로 분석했습니다. 그 대답은 “오만과 편견”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2. 오늘은 요한복음 11-12장을 읽어 볼 텐데, 그 주제는 “영광의 죽음을 향해 전진하는 예수”입니다.
3. 11-12장 내용을 보면 그 주제는 죽음과 부활입니다.
4. 오늘 공부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 II.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을 행하는 예수

내러티브 전개

#### 1) 나사로의 죽음과 하나님의 섭리(1-16절)

-예수가 사랑하는 자인 나사르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यो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도 그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9:3).

-15절. [나사르가 죽었을 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예수가 그곳에서 있지 않아서 나사르가 죽어 예수가 그를 살릴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믿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는 나사르를 단순히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서 곧바로 그에게 달려가지 않고, 있던 곳에서 이 틀을 더 머물다가 갑니다(6절).

#### 2) 생명의 주관자 예수(17-37절)

-결국, 나사르는 죽었습니다. 나사르의 누이인 마르다를 찾아가서 예수는 이렇게 대화합니다.

-23절. 예수: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24절. 마르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니다.”: 유대인들 중 바리새인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행 23:8). 이것은 부활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5:21, 25-29; 6:39-40).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런데 예수의 말씀은 종말

에 부활할 것 이상을 말합니다. 예수의 현존으로 말미암아 벌써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부활도 예수와 상관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과 생명은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 3)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38-46절)

-사랑하는 자의 죽음 앞에서 예수의 감정적인 반응은 슬픔이었습니다. 33절. "...예수께서 그[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34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cf. 눅 19:41)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어떤 사람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예수가 자신이 사랑하는 나사로의 병을 고칠 수 없더냐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43-44절)

## 2. 교훈

1) 예수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실제 살린 존재다.

-죽은 자를 살린 것은 예수가 행한 최후의 표적이면서 동시에 최고의 표적이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거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조차도 예수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죽은 나사로를 현재 살려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종말론적 부활은 믿었지만, 그 이전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바로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2) 부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부활을 예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당시 부활에 대한 여러 이론들이 있었지만, 예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함으로써 부활에 대한 모든 해석은 예수를 떠나서는 할 수 없다고 천명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부활할 것이고, 살아서는 그 부활의 능력이 현재에 미쳐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3) 예수의 사랑은 보편적이면서 동시에 개별적이다.

-나사로 부활 기사에는 나사로 가족(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이 특별히 예수의 사랑받는 사람들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보편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이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적 사랑이 아니라, 살과 피를 가진 구체적인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 III. 산헤드린 공의회와 예수 살인 모의(11:45-57)

### 핵심 내용

1)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는 최고의 표적을 행하자 그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많은 사람이 믿었던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일을 고자질 했습니다(45-46절).

2) 예수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말이 퍼지고, 사람들이 예수에게 몰려들자, 이스라엘 자치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가 소집되었고, 의장인 대제사장은 예수를 희생양으로 삼자로 합니다. 대제사장은 종교적인 양심으로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48-50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처소, 곧 성전]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중의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대제사장은 예수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민족의 보존을 택하자고 말합니다.

3)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한 예수의 죽음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51-52절. “이 말은 스스로 말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흠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대제사장 가야바는 사실 자신도 자신이 말하는 말의 신학적 중요성을 모르고 했지만, 그해 유대인의 대제사장이었기에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말을 자신도 모르게 한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흠어진 하나님의 백성”은 메시아 시대에 모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합니다(사 11:12; 43:5).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나라”를 유대인 출신 크리스천으로, “흠어진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 출신 크리스천으로 흔히 해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유대인/이방인의 범주로 사람을 나누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믿어 모든 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되는 것, 곧 교회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일 세대 크리스천과 후세대 크리스천이 모여 하나 됨을 말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교회입니다(요 10:16; 17:11, 20-23).

## 2. 교훈

1) 예수의 죽음은 인간들의 모함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2) 예수의 죽음은 새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탄생시킨다.

## IV.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12:1-50)

### 1. 예수의 장례를 위해 예수의 몸에 향유를 붓는 마리아(1-8절)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습니다(3절).

-가룟 유다는 공리주의적 평가(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의해 이것을 낭비라고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 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7절)이라고 말하여 이 마리아의 행위가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는 놀라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드물게도 이 기사는 공관복음(막 14:3-9, 마 26:6-13; 눅 7:36-38)과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데 공관복음에서는 옥합을 깨뜨리는 익명의 여인의 행위와 그 의미가 예수의 장례 준비라는 것이 동시에 비슷한 비유로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선행보다도 이 행위가 예수의 장례준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 더 부각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의 행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 2.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9-19절)

-정복자 왕은 말을 타고 귀환한다면, 예수는 평화의 왕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

성합니다(14절).

-구약성경(슥 9:9)에 나오는 말을 인용하여 요한은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온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왕은 십자가상에서 나중에 만왕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의 등극식 플래카드에는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19:19)

-바리새인들은 이 광경에 놀라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불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 데 없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19절)

### 3.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예수(20-36절)

-예루살렘 입성 후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자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때가 되었음을 알아차립니다. 23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썩어지는 밀알의 비유를 말하는데(24절),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에 관해서도 말합니다(25-26절).

-그러면서 요한복음에는 유일하게 나오는 수난을 앞둔 시점에서의 고뇌를 말합니다.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곧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는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합니다(31절). 이것은 예수의 죽음이 가져올 결과를 말합니다.

-예수 죽음의 긍정적 결과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십자가, 부활, 승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 끌겠노라.”(32절)고 하신 것입니다.

### 4. 표적을 본 사람들의 불신앙(37-50절)

1) 예수의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은 그 사람들의 완고한 마음 때문이었다(37-41절).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은 그의 사역이 실패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본문은 이것을 구약성경 예언(사 53:1)의 성취라고 봅니다. 동시에 그 예언의 성취에는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표적을 보아도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예수의 표적을 인정하면서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 신앙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42-43절).

-예수의 표적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특히 죽은 나사로를 살린 표적은 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을 공공연하게 드러낼 경우 삶의 터전인 지역 공동체 회당에서 출교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두려워 공개적으로 신앙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43절)

3) 예수가 세상에 온 것은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지만, 그의 말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44-50절).

-예수가 세상에 온 목적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게 됩니다.

## V. 적용과 실천

### 1.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죽음은 인류가 직면하는 행복의 걸림돌입니다. 예수의 최후의, 최고의 표적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또 지금 살아있는 자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이 변합니다.

### 2. 예수의 죽음과 부활

예수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이었고, 그 결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의 기름 부음은 바로 이런 일을 위한 것이었기에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인류를 부활시키기 위한 위대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현실의 삶의 되어 예수를 소유한 사람은 그 부활의 능력을 지금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쁨과 생명이 가득 찬 삶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요일 1:4)

### 3. 믿음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방법은 완고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 VI. 나가는 말

1. 오늘은 요한복음 11-12장을 통해서 죽음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예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죽음은 모든 사람을 그와 교제케 할 수 있는 일을 만든 것입니다.

2. 다음 시간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고별 설교하는 예수(13-16장)를 고찰해 보겠습니다.